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연주 특징에 관한 연구 - Black Dog의 스케일을 중심으로 -

박경생*, 조태선**
*온뮤직실용음악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a2601234@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Feature of Guitarist Jimmy Page - Black Dog On a Scale -

Kyung-Saeng Park*, Tae-Seon Cho**
*On Music Academ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영국의 밴드 Led Zeppelin은 밴드 음악을 예술, 상업적으로 성공을 넘어 블루스, 락, 컨트리 등 음악의 장르를 허무는 기록을 세운다. 이들의 성공에는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Jimmy Page가 존재하기에 가능하였다. 베트남전쟁 등의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음악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의 영향력은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뮤지션 들로부터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 Dog 곡의 중심을 이루는 스케일을 통하여 기타 솔로의 특징과 피킹, 어프로치, 어보이드, 코드, 텐션 노트 등이 곡에 미치는 영향과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 분석하겠다.

1. 서 론

비틀즈를 시작으로 보컬, 드럼,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의 4인조 체제가 확립되게 된다. 1960년대 들어서 영국에서 기타의 신으로 추앙받는 Eric Clapton, 미국의 가난한 기타리스트에서 27살 나이에 요절한 Jimi Hendrix, 영국 탑 밴드 중 하나인 Deep Purple의 Ritchie Black More,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로 불리는 Led Zeppelin의 Jimmy Page의 등장으로 Rock 음악은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들의 행보는 음악을 뛰어넘어 사회문제 등의 이슈를 몰고 다니며 젊은 세대들의 우상이 되었다. Jimmy Page는 단순한 8비트 락 음악에서 탈피하여 펑크, 그런지, 펑키, 발라드 등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로 연주자로서도 높이 평가받는다. 녹음 작업에서 그의 노력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 열악한 1970년 녹음기술의 한계를 직접 연구하여 마이크의 위치 잡음, 인도의 시타르, 중국의 대징 등의 동양적 악기, 더블링 효과를 도입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영국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석권하면서 영국의 미국 침공이라는 British Invasion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들의 음악은 문화 전반에 걸쳐 동시대의 사람들을 넘어 현재의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Black Dog 곡에서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기타 솔로 연주에 사용된 스케일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음악인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2. 본 론

레드 제플린 정규앨범 4집 1번 트랙에 실린 Black Dog이다. 헤비 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곡이다. 지미페이지는 마샬 앰프, 깁슨 레스폴 기타, 퍼즈, 테이프 에코 이펙트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기타, 베이스는 같은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유니즌 리프를 주고받는 형식의 8비트 Rock 음악을 표현한다. 크로

매틱 어프로치 노트, 텐션 리졸브가 사용되어 다이아토닉 코드 스케일에서 벗어나 다른 조성의 음을 가지고 오는 모달 인터체인지의 특징을 나타낸다. 브릿지 파트에서 셔플 리듬으로 바뀌면서 블루스 장르를 표현한다. 펜타토닉 스케일을 기반으로 자연 배열 음에서 벗어나 재즈 화성학 요소가 들어간다. 반복적인 시퀀스 플레이가 자주 나오게 된다. 이는 더 화려한 라인 연결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지미 페이지의 기타 솔로는 마이너 펜타토닉, 믹소리디안, 블루스, 이오니아, 디미니쉬드 스케일을 통하여 다채로운 보이싱을 표현한다. 이러한 스케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1도 Major로 진행되며 멜로디가 아닌 짧은 악절을 반복하는 리프 연주로 1마디 4/2박으로 박자를 당겨서 못 갖춤 마디로 기타 리프가 시작된다. b7도, 7도가 8분음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다음 마디 1도로 가기 위한 반음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의 Chromatic Approach로 해석된다.



[Fig.1] Minor Pentatonic Scale

[Fig.1]은 1971년 발표되었던 4집 앨범 “Led Zeppelin IV”에 수록된 <Black Dog>의 인트로 연주의 일부이다. 보컬과 기타가 4마디씩 서로 멜로디와 솔로 라인을 주고받는 패턴을 보여준다. A7 코드에서는 A Mixo Lydian Scale을 사용한다. 하지만 Blues 음악으로 해석하여 Major 계열 코드에서 A Minor Pentatonic Scale을 사용하게 된다. b3도, b7도가 나오는 이유로 한 곡을 하나의 Key로 보는 조성 음악이 아닌 각각의 마디를 독립적으로 보는 Mode 음악 표현하고 있다. 다른 Key에서 조성을 빌려오게 되는 Modal Interchange로 해석된다. 3도는 Minor Chord Scale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Rock 음악에서는 3도를 제외한 1도, 5도의 완전 5도 Voicing으로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기에 적합하다. 완전 5도는 강하다는 뜻의 Power Chord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2-2 믹소리디안 스케일

125~126마디로 Flanger Effector를 사용하여 4마디

셋잇단음표를 멜로디가 아닌 짧은 악절을 반복하는 리프 본격적인 솔로가 나오기 전에 Bridge 역할을 하고 있다. 1도 Major에서 3도가 나오는 이유로 A Mixo Lydian Scale Tension Note 13th로 Chord Tone에서 Tension Note 13th를 사용하여 자연 배열에서 벗어나 긴장감을 표현하는 Re-Harmonization의 특징을 보인다. Jazz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Voicing으로 즉흥연주(Improvisation)의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도 Major에서 꾸밈음 b3도에서 1도로 Bending 후 2번 줄 1도를 연주한다. 기타는 2개의 같은 음이 있어서 운지, 음색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4도 Major는 1도, 3도, 5도의 Drop 1 Voicing으로 b3도가 등장하여 D Minor Pentatonic Scale이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3도, 6도가 나오게 되어 G Key Diatonic Chord Scale 5도 D Mixo Lydian Scale Chord Note로 해석된다. Drop Voicing은 코드의 일정한 음의 배치를 한 옥타브 내려서 만들어진 Voicing을 말한다. 3도, 5도, 7도의 배치 순서에 따라 Drop 1~3 Voicing으로 표기한다. Bass Note 1도를 넣어야 안정적인 Voicing으로 완성된다.



[Fig.2] Mixo Lydian Scale 1.[1]

2-3. 블루스 스케일

1도 Major의 코드 톤 루트(A) 5도(E), 3도(C#), b7도(G)의 코드 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도(B)가 나오지만 텐션노트 9음으로 위화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텐션은 11, 13등 숫자가 올라갈수록 Voicing의 색채가 진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3도(C#), 4도(D), 중 4도(D#), 5도(E), b3도(C)를 8분음표와 셋잇단음표로 표현한다. 2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음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의 Chromatic Approach이고 2번째는 A Blues Scale의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Syncopation, Bending, Up, Down 주법으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2도(E)는 텐션 노트이지만 베이스 음에 해당하여 코드 노트에 포함된다. 4도(D) 코드에서 루트(D), 2도(E), 5도(A)의 코드 노트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b7도(C)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D7 코드에서 블루스 스케일로 해석된다. Major 코드에서 쓰이는 Blues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이다.



[Fig.3] Blues Scale 1.[1]



[Fig.5] Diminished Scale 1.[1]

2-4 이오니안 스케일

브릿지 파트 159~162마디에서 1도 Major b7도(G), M7도(G#), 루트(A), b3도(C), 3도(C#)가 나오는 이유로 반음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의 Chromatic Approach로 볼 수 있지만 M7도, 3도가 나오게 되어 A Ionian Scale이 사용되었다. 루트는 다 포함된다. 4도(Dsus4) 코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메이저 스케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오니안 이다. 셋 잇단 음표 코드 노트를 기반으로 한 Sequencer 패턴을 보이고 있다. 1도 Major 꾸밈 음 4도에서 5도는 셋 잇단음표로 2번 줄에 있는 5도를 연주한다. 이는 불안정한 어보이드 노트에서 안정적인 코드노트로 돌아오는 텐션 리졸브로 해석된다. 기타는 2개의 같은 음이 존재한다. 기타 줄의 굵기의 차이로 음색이 달라지는 목적 또는 손가락이 편하게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인다. 5도(E), 루트(A), b7도(G)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1도 Major의 구성 음으로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음으로만 연주하는 방법을 코드 톤 이라 한다.



[Fig.4] Ionian Scale 1.[1]

2-5 디미니쉬드 스케일

후주 165~166마디 4도 메이저 코드에서 임시 제자리표가 붙어 b7도, b3도의 특징을 보인다. 3도가 부딪치는 반음 관계가 Blues의 색채를 잘 드러내고 있다. Diatonic Chord Scale 4도 Major scale의 1도, 5도, 3도 Chord Note로 연결되는데 임시 제자리표가 나와 A Key에서 벗어난 b7도, Minor를 결정짓는 역할의 b3도가 나오게 된다. 이는 Diminished Scale의 Chord Tone, Avoid Note로 해석된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지미 페이지 Black Dog' 작품에 나타난 기타 솔로에서 스케일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이펙터와 기타, 베이스의 유니즌 리프로 인하여 배음을 증가시키는 더블링 효과를 연출하였다. 5음계의 펜타토닉 스케일을 벗어나 각각의 마디를 독립적으로 보는 모드 스케일 사용하게 된다. 이는 재즈 화성학을 적극 활용하여 퓨전 음악의 면모를 보여준다. 열악한 1970년대 녹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킹의 강약과 볼륨주법, 바이올린 활 등을 이용한 연주법은 후대의 뮤지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 음악의 발달로 인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리얼 악기를 사용한 사운드 가 팝 음악의 중심에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패턴, 유행하는 음악을 카피하여 단기간에 돈을 버는 수단에서 벗어나 음악인들이 자립하고 본인들이 작사, 작곡하여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어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나오게 되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1] Led Zeppelin IV Platinum Guitar. Alfred. 2013.
- [2] Keith Shadwick. Led Zeppelin, 을유문화사. 2011,
- [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3799> Blues Scale. 2002.
- [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396> Pulling Off. 2002.
-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618> Hammering On. 2002.